

주간 테러동향

'21. 6. 2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벨기에, '방역전문가 살해 협박' 군인 총기 자살

- 6.20 벨기에 경찰은 코로나19 강력 방역을 주장한 전염병학자 살해 미수 후 대테러 감시망에 올라 약 한 달간 도피행각 중이었던 극우 성향 「위르겐 코닝스」 (46세)의 시신을 발견, 총기자살로 추정

미주

○ 美, 자국내 '폭력적 극단주의 테러' 대응 汎정부 전략 공개

- 6.15 美 행정부는 지난 1월 의사당 폭동 이후 갈수록 극성을 부리는 자국내 폭력적 극우·극단주의와 조직적 인종주의 대응을 위한 예방 및 法 집행 관련 汎정부 차원의 국가전략 발표

* (주요 내용) △검사·수사관 등 고용 예산 증액 △연방·州·지방정부-IT기업間 정보 공유 등

○ 美, 아프간 철수 後 테러단체 '미국 본토 위협' 가능성 제기

- 6.17 美軍 수뇌부는 자국군 아프간 철수 후 2년 내에 알카에다, ISIS 등의 테러단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력을 再정비, 美본토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, 그 위협 수위는 '중간(Medium)' 정도로 평가

○ 美, '아프간 철군' 속도 조절 가능성 시사

- 6.21 美 국방부는 아프간 철수(시한 : 9월)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도, "탈레반의 지속 공세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변하고 있어 철군 규모와 속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"고 언급

아 · 태평양

○ 호주, 'SKD' 극우단체 최초 테러단체 지정

- 호주 연방의회 보안정보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 정치·인종적 측면의 '외로운 늑대'형 조직원을 물색, 폭력공격을 선전·선동한 'Sonnenkrieg Division'(SKD)을 극우단체 최초로 테러단체로 지정

* 종전까지 호주는 자국과 美·英·캐나다·뉴질랜드로 구성된 'Five-Eyes' 정보 동맹국 중 유일하게 우파 극단주의 단체를 테러단체로 未지정

○ 파키스탄, '자국내 美軍 기지 不許' 천명

- 6.20 파키스탄 총리는 美軍이 아프간 철수 후 유사시 대응을 위해 주변국에 기지 구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, "자국 영토에서는 어떠한 美 군사기지도 활동도 허용하지 않을 것"이라는 입장 표명

○ 경찰청, 우즈벡과 '대테러 정보협력' 강화 추진

- 6.17 경찰청은 우즈벡 내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무슬림 테러 위험인물의 국내 유입차단, 滯韓 극단주의 추종자 관련 상호 정보 공유 등 대테러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 예정

* '19.1월, UN은 "우즈벡인 테러단체 추종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"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

아프리카

○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*(ECOWAS), 최근 2년간 테러현황 발표

- 6.19 ECOWAS는 '20년초부터 최근까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700여건의 테러가 발생해 민간인·軍 등 약 2천여 명이 사망하였으며,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

* '75년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市에서 서아프리카지역 15개 국가가 결성한 경제 공동체

에티오피아, 대규모 군중 집회 폭탄테러

- '18.6.23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市 메스켈 광장에서 「아비 아흐메드」 총리 연설 종료 직후 수류탄이 폭발, 2명 사망·150여명 부상
 - 경찰은 현장에서 수류탄 투척 추정 용의자 3명을 체포(이후 2명 추가 검거) 하였으며, 사건 직후 「아흐메드」 총리는 “우리 에티오피아의 단결을 원하지 않는 세력의 실패한 시도”라고 비난
 - * 「아비 아흐메드」 총리는 4월 취임 직후 반체제 인사 석방 등 국민통합 개혁조치 단행
- 에티오피아 검찰은 '18.9월 테러 용의자 5명을 기소하며, 이들이 과거 테러단체로 분류되었던 오로모해방전선*(OLF) 추종자들로 「아흐메드」 총리의 개혁조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자행했다고 발표
 - * 오로모族은 에티오피아 內 최대 민족(35~40%, 약 3,500만명)으로, 당시 정부의 정치·경제적 차별을 이유로 극렬한 반정부 시위에 참가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오로모해방전선(Oromo Liberation Front)>

- (결성) '73년 오로모族이 '민족적 자결권'을 주장하며 결성한 무장단체
 - ※ '18.7월 해산
- (주요세력) 「아우드 입사」(최고 지도자), 추종세력 1만여명
- (활동지역) 에리트리아(근거지), 에티오피아 일대(활동지역)
- (활동수법) 반정부 시위·투쟁, 민간인 학살, 폭탄 테러 등
- (주요테러) ①'15.5.30 에티오피아 군인 12명 살해 ②'18.3.18 군용차량 2대 공격(사망 30명) ③'18.6.23 아흐메드 총리 군중집회 폭탄 테러(사망 2, 부상 150여명)
- (참고사항) 오로모해방전선(OLF)은 '18.7월 해산하였으나, 잔여 조직(700~750명)이 'OLF 샹네'(오로모 해방군)라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여 '20.11월 에티오피아 서부에서 민간인 수백명을 학살하는데 관여